

## ☉ 서부발전, 민간발전사와 발전설비 운영기술 교류 협약체결

- GS EPS와 손잡고 설비운영·기술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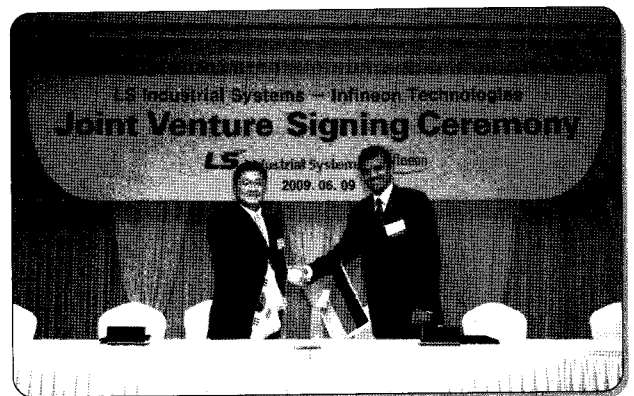
한국서부발전(사장 손동희)은 지난 6월 19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민간발전사인 GS EPS(사장 이완경)와 발전설비 운영기술 등을 교류하기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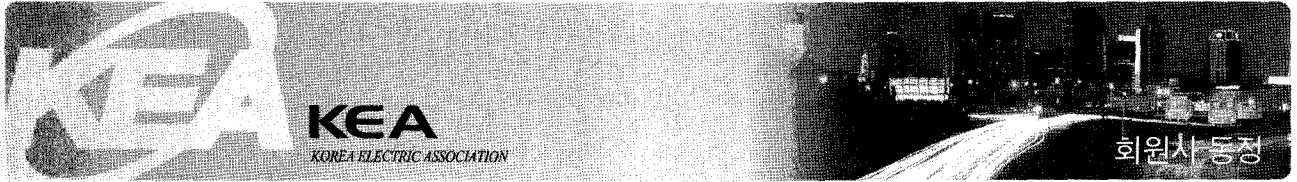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부발전과 GS EPS는 발전설비 운전 및 정비와 관련한 기술정보를 공유하게 되었다. 각 회사가 보유한 유사설비의 예비자재, 특수공구의 공동활용, 해외시장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정보도 함께 나눌 계획이다. 이밖에도 두 회사는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함께 보유한 시설물을 서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매년 10월 중 정기교류회도 열기로 하였다.

손동희 서부발전 사장은 “공기업인 서부발전은 선진화 프로그램을 자체 진행하고 있지만 민간전력회사인 GS EPS와 기술 교류를 통한 민간기업 마인드를 인식하고 상호 Win-Win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완경 GS EPS 사장은 “경험과 기술이 축적된 한국서부발전과의 교류를 통해 더 경쟁력있는 발전운영과 더불어 해외 및 신재생 에너지분야에서도 공동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고 말했다.

한편 서부발전 관계자는 “서부발전은 가스터빈발전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해외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협약은 상호 경쟁력 제고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 LS산전과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 'LS파워세미텍' 설립





LS산전(대표 구자균)은 최근 주력하고 있는 그린 비즈니스 중 하나인 전력용반도체 모듈 사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독일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社 와 6월 9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계약 체결식을 열고 LS파워세미텍 (LS Power Semitech)을 설립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독일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Infineon Technology AG)社는 99년 설립돼 시장점유율 세계 1위의 전력용반도체 모듈 회사로 임직원 수는 약 26,400명, 지난해 매출은 약 7.8조원 규모의 글로벌 대기업이다.

이번 계약으로 8월께 공식 설립되는 LS파워세미텍社는 자본금 약 400억원(2330만 유로)으로 LS산전이 자본 투자로 지분 54%를, 인피니언이 파워모듈 제품군인 CIPOS(Control Integrated Power System)에 대한 IP(지적재산권)라이선스, 기술, 공정노하우, 생산설비투자로 지분 46%를 보유해 LS산전이 경영권을 갖게 되며, 양사는 합작법인의 제품설계 및 개발, 생산기술, 글로벌마케팅 측면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LS산전 천안공장에 설립되는 LS파워세미텍은 올해까지 생산설비 구축 등 준비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지능형 전력용 반도체 모듈 브랜드인 CIPOS의 양산을 시작해, 첫 해 약 200만개의 모듈 생산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

해 LS파워세미텍은 2013년 약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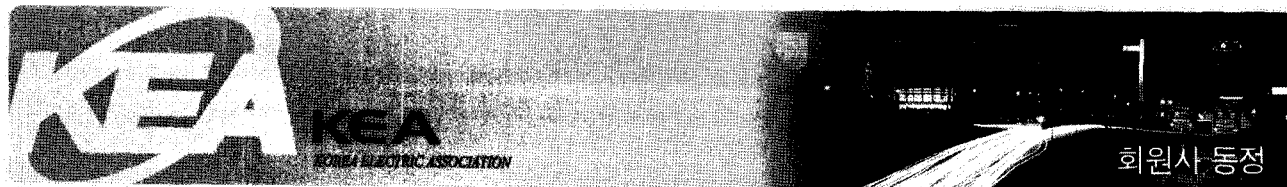
LS파워세미텍이 주력으로 생산하는 제품은 가전용 지능형 전력용 반도체 모듈로, 이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으로 모터의 효율적 가변속 구동의 역할을 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제품이다.

지능형 전력용반도체 모듈을 가전에 적용하면 전력사용량을 30~40% 줄일 수 있어, 에너지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에어컨, 세탁기 등 가전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은 인정받고 있지만 고효율 제품의 핵심 부품인 지능형 전력용 반도체 모듈은 일본 등 해외 업체에 전량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술력을 갖춘 LS파워세미텍이 국내에 설립됨에 따라 수입 대체 효과도 기대되고, LS파워세미텍은 생산제품 중 80% 이상을 수출할 계획이다.

구자균 LS산전 사장은 이날 계약 체결식에서 “세계 1위의 전력용 반도체 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력용반도체 모듈 사업이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지능형 전력용 반도체 모듈 시장에 국내 최초로 진입해 국가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 두산중공업, 이란에서 7천400만 유로 발전설비 수주

두산중공업(사장 박지원)이 이란에서 7천400만 유로(1200억원) 규모의 발전설비를 수주했다.

두산중공업은 이란 테헤란 현지에서 이동규 HRSG BU장과 발주처인 파라지(Faraji) 마프나 보일러(MAPNA Boiler)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마프나가 이란 내에서 운영하는 4개 복합화력 발전소에 총 8기의 배열회수보일러(HRGS) 설비를 일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6월 14일 밝혔다.

이번에 두산중공업이 수주한 HRSG는 이란 내 카노지(Kahnooj) 등 4개 복합화력 발전소에 공급되는 핵심 발전설비로서, 두산중공업은 독자 기술로 올해 6월부터 설계에 착수해 내년 4월부터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이란 현지로 납품 예정이다.

이동규 두산중공업 HRSG BU장은 "이번 수주는 두산중공업이 그동안 이란에서 수행한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엔지니어링 능력과 독자 개발한 'D-Top' 모델의 성능에 대한 신뢰성 덕분이었다"며 "이란 시장내 두산중공업의 독보적인 입지를 바탕으로 향후 발주되는 HRSG 수주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발전시장은 기존 발전소의 노후화로 신규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점진적인 유가 상승과 발전 수요 증대로 향후 2~3년내 지속적인 발주가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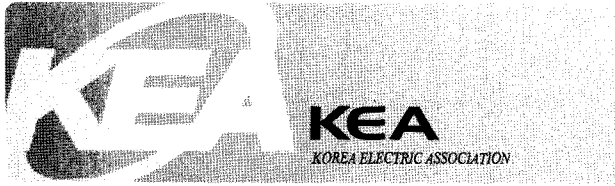
두산중공업은 이란 발전시장에는 1999년도 파스(Fars) HRSG 공사(3천만 달러 상당)로 첫 진출한 이후, 2003년도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인 마프나 복합화력발전소(2억 4천만 유로 상당) HRSG공사 등 총 62기의 HRSG를 공급하고 있다.

한편, 두산중공업은 1990년 후반에 HRSG 사업에 본격 참여한 이후 전 세계 각지에 약 370여기를 공급했으며, 2003년 처음으로 이 부문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른 데 이어 2007년과 2008년 2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중동 및 유럽 지역의 대형 HRSG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 ○ 한국수력원자력, 글로벌 본드 10억불 성공적 발행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의 발행금리

한국수력원자력이 6월 10일(뉴욕 현지 시간) 금융위기 이후 공기업 최초로 미화 10억불 규모의 5년 만기 글로벌 본드를 발행하는데 성공했다. 발행금리는 6.503%로 5년물 미 국채 금리에 3.625%,



US\$ 리보금리에 3.09%를 각각 가산한 수준으로, 올해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이 발행한 5년 만기 공모 외화채권 중 최저 수준이다.

한수원은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한시적인 안정기를 최대한 활용, 글로벌 MTN 프로그램으로 국제금융시장에 신속히 진입하여 대규모의 외화자금을 성공적 조건으로 차입함으로써 추후 금융시장 신용경색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필요한 외화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 국채금리가 현재 역사적 최저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향후 추세적 금리상승이 예상되어지는 바, 이러한 시장상황을 적극 고려하여 차입금리의 상승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번에 대규모로 발행을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한수원은 국제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발행 최적시기를 포착하였고, 로드쇼 기간 중 투자자의 투자수요 및 선호도를 면밀히 관찰하여 채권 만기와 발행규모를 결정하는 등 탄력적 전략으로 채권발행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미국, 유럽 및 아시아 지역 306개 투자자가 참여했으며 한국계 발행물 중 단일채권으로서는 최대 규모의 주문량(80억 불)을 기록하는 등 투자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이끌었다.

한편, 최근 북한 관련 지정학적 이슈의 부각에 따른 시장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기업 중 최대규모의 외화채권 발행에 성공함으로써 공기업으로서 적극적인 국가 IR

활동도 겸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상승했던 기 발행된 한국계 외화채권의 가산금리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발행함으로써 새로운 시장 기준금리(벤치마크)를 투자자들에게 제시하게 되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번 글로벌본드 발행을 통하여 조달되는 자금을 신규원전 건설 및 원전연료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 ☀ 한국수력원자력, 佛 우리늄 농축공장 지분 확보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우리늄 농축공장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김중신·이하 한수원)은 6월 15일(현지 시간 오후 12시50분, 한국시간 7시50분)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적 원자력회사인 아레바(AREVA)社와 우리늄 농축공장 지분참여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번 계약을 통해 원전연료 제조상 가장 핵심적인 분야에 진출함으로써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농축우라늄을 확보, 국내 원전산업의 위상을 한층 제고할 수 있게 됐다.

한수원은 아레바사가 트리카스탱 지역에 건설 중인 GB-II 농축공장의 지분 2.5%를 확보키로 하고 김종신 사장과 앤 로베르종 아레바사 회장이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아레바사는 원전 르네상스 시대에 대비, 트리카스탱 지역의 기존 공장 인근에 새 농축공장을 건설하면서 세계 우수 전력회사와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제휴 차원에서 한수원을

비롯, 일본 간사이전력, 벨기에 수에즈, 프랑스 EDF 등 유명 전력업체의 투자를 유치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체확산방식 공장이 노후화돼 트리카스탱 지역에 새로 건설 중인 원심분리방식의 GB-II 공장은 지난 2006년 9월 건설에 착수, 올 하반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이 GB-II 공장의 최대 생산물량은 800만SWU(SWU : 농축서비스 단위)로, 현재 전 세계 소요량의 약 15%에 달하며, 향후 시설용량을 1,100만SWU까지 증설할 계획이다.

우라늄 농축공장 지분매입으로 한수원은 향후 비상시에 농축 우라늄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보다 안정적이고 싼값에 농축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GB-II 이사회의 정식 멤버로 참여, 농축서비스 원가를 포함한 고급정보를 수시로 획득할 수 있게 돼 실제 농축공장을 보유, 운영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울러 새 농축공장은 이미 생산 예정물량의 대부분을 원전업체에 공급키로 하는 계약도 맺어 향후 안정적으로 투자수익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